

“영혼 같아 넣어 만든 앨범이에요”



싱어송라이터 에디킴(본명 김정환·28)은 아직 낯선 이름일 수 있다. 엠넷 ‘슈퍼스타K 4’에서 로이킴, 정준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군인, 미국 버클리 음대 출신이라는 이력은 데뷔 전부터 화제가 됐다. 이후 음원 성적도 괜찮았다. ‘너 사용법’, ‘팔당담’,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만 작업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앨범 형태 신보는 2015년 1월 ‘싱싱싱’(Sing Sing Sing)이 마지막이었다. 11일 에디킴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3년 9개월 만의 미니 3집 ‘마일스 어파트’(Miles Apart)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로 스물아홉 살, 20대 마지막 앨범이다. 컴백을 앞두고는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도 했다. 오랜만에 내는 앨범인 만큼 손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 미니 1,2집 때는 미스틱의 윤종신, 조정치가 프로듀싱을 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앨범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그는 “셀프 프로듀싱 앨범이라 윤종신 선배님이 거의 관여하지 않으셨다.

싱어송라이터 에디킴, 3년 9개월만에 컴백 가슴 아픈 이별 담은 미니 3집 ‘마일스 어파트’

조연을 구하려고 찾아가 쪽들려드렸더니 ‘년 음악에 손뼉 대가 없다’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런데 가사는 신경 써야겠다. 여기 쓴 것보다 더 아픈 게 필요하’고 하셨다. 좀 더 애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듯하다. 그래서 수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며 “정말 영혼을 같아 넣어 만든 앨범이다. ‘명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외에도 변화를 줬다. 머리를 기르고 급속급속하게 해 로맨틱한 느낌을 줬다. 그는 “3년간 로복처럼 똑같은 머리였는데 앨범 콘셉트에 맞게 바꾸고 싶었다. 마음에 든다”며 “다만 머리 말리는 데 10분 넘게 걸려서 불편하다. 활동이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웃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떠나간 사람은 오히려 편해’를 비롯해 ‘라스트’(LAST), ‘사랑 모양’, ‘달라’, ‘초능력’, ‘마일스 어파트’까지 6곡이 담겼

다. 이제까지 주로 사랑을 시작한 남자의 말랑말랑 달콤한 마음을 노래했지만, 이번 앨범은 모두 가슴 아픈 이별을 주제로 삼았다. ‘라스트’는 오래 키운 반려견 안젤로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쓴 곡이다. ‘떠나간 사람은 오히려 편해’는 동갑내기 프로듀서 구름이, ‘라스트’와 ‘초능력’은 재즈 뮤지션 윤석철이 편곡을 맡았으며 ‘사랑 모양’과 ‘달라’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쓴 작곡가 서원진이 편곡했다. ‘마일스 어파트’

는 김동률의 ‘답장’을 편곡한 정수민이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앨범명과 동명 수록곡 ‘마일스 어파트’는 미국 유학 중 사귀던 외국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를 회상하며 쓴 곡이다. 당시 입대를 위해 귀국하며 이별을 고했다고 한다. “학업도 중단하고, 여자친구에게 매몰차게 군대 가야 하니 헤어지자고 말하고 보스턴 공항에 앉아있었어요. 그때 그 상실감과 허탈함, 공황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 곡 초안을 써냈었죠.” 활동 목표를 묻자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두려움이 있다. 음원차트 30위권에만 들어도 만족한다”고 한다. 이어 “중학교 1학년 때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꿈은 빌보드 1위였고 롤모델은 마이클 잭슨이었다”며 “그걸 향해 가다 보니 어느새 음악을 하고 있더라. 아직도 그 꿈은 유효하다. 열심히 꿈을 향해 다가가 보겠다”고 한다. /연합뉴스



DJ DOC 이하늘 제주서 백년가약 11년 교제 끝 17세 연하 연인과

그들 DJ DOC의 이하늘(본명 이근배·47)이 17세 연하의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소속사 슈퍼재코드는 이하늘이 10일 오후 5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바닷가 한 카페 앞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축가는 가수 임창정과 래퍼 산이, 사회는 엠씨 뎅동이 맡았으며 주례는 없었다. 아울러 지누선의 지누와 가수 하하를 비롯해 이하늘과 SBS TV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함께 출연한 김광규, 최성규, 구본승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연합뉴스

한 참석자는 “DJ DOC 멤버인 김창열과 정재용이 눈물을 흘리며 오랜 동료의 결혼을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하늘은 신부와 2007년부터 11년째 교제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8월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에 ‘고맙습니다, 11년 기다려준 이 여자’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하늘은 1994년 DJ DOC 1집 ‘슈퍼맨의 비애’로 데뷔해 ‘떠피의 법칙’, ‘미녀와 야수’, ‘여름 이야기’, ‘DOC와 춤을’, ‘나 이런 사람이야’ 등 히트곡을 냈다. 최근에는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하며 재조명됐다. /연합뉴스

드라마 ‘프로메테우스’ 하지원 하차

스케줄 문제...배우 섭외로 제작 차질 예상

하지원이 드라마 ‘프로메테우스’에서 하차한다. 11일 하지원 소속사 해외달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지원이 ‘프로메테우스’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하차 이유는 스케줄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말 방송 예정인 ‘프로메테우스’는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현 국제정세를 기반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해외로 파견된 북한의 핵 관련 핵심 과학자들이 송환 도중 사

라졌다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드라마다. 여주인공인 국정원 대북2팀장 채은서는 드라마 기획단계부터 하지원을 생각하고 만든 캐릭터로, 그의 이미지가 그대로 담길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하지원이 하차하게 되면서 주연 배우를 다시 섭외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아직 방송사 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연 배우까지 교체되면서 제작에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이유 10주년 싱글 ‘삐삐’ 차트 정상

투어 콘서트 개최...내달 10일 광주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5)의 데뷔 10주년 기념 싱글 ‘삐삐’(BBIBBI)가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10일 오후 6시 공개된 ‘삐삐’는 11일 오전 8시 멜론, 지니, 올레뮤직, 엠넷, 벅스, 소리바다, 몽키3뮤직까지 7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이유의 ‘삐삐’는 지난해 9월 두 번째 리메이크 음반 ‘꽃피고 돌’ 이후 1년여 만의 신곡이다. 무례하게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열터너티브 R&B 장르로 풀어냈다. 작곡가 이종훈이 작곡을 맡고 아이유가 작사가로 참여했다. 아이유는 오는 28일 부산, 11월 10일



광주, 11월 17~18일 서울, 12월 8일 홍콩, 12월 15일 싱가포르, 12월 16일 대국 방콕, 12월 24~2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2018 아이유 10주년 투어 콘서트- 이 지금’을 타이틀로 공연한다. /연합뉴스

공유, 영화 ‘서복’ 주연 발탁

죽음 앞둔 전직 정보국 요원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활약 중인 배우 공유가 영화 ‘서복’으로 돌아온다. 공유는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서복’에 주연으로 발탁됐다고 CJ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죽음 앞둔 전직 정보국 요원 기한(공유 분)이 영생의 비밀을 지닌 인류 최초 복제인간 서복과 그를 차지하려는 여러 세력의 추적 속에서 위험한 동행을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공유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정보국 형사 기한 역을 맡는다. /연합뉴스



영화 ‘용의자’ ‘부산행’ ‘밀정’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한 공유는 tvN 드라마 ‘도깨비’ 성공 이후 2년 만에 차기작으로 영화를 선택했다. ‘서복’은 내년 상반기 촬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 정석원, 일부 유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올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종합선물세트 표방한 ‘미스김의 미스터리’

권혁수-다숨 주연...미스터리 오피스극 KBS 단막극 극본공모작 오늘 밤 10시

배우 권혁수와 다숨이 주연을 맡은 KBS 2TV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미스김의 미스터리’는 ‘종합선물세트’를 표방한다. 지난해 제30회 KBS 단막극 극본 공모에서 가장(박선희 작가)을 받은 이 작품은 산업스파이를 찾는 미션을 두고 미스터리한 미스김과 그의 주변을 맴도는 미스터리가 펼쳐지는 오피스극이다. 연출을 맡은 김신일 PD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 첩보, 코믹, 멜로 재밌는 건 다 있다. 나이키, 아디

다스 같은 초일류 의류 기업에서 기술을 가로채려는 사람들과 지키려는 사람들을 재치있게 그렸다”고 설명했다. 빛나그룹 스포츠사업부 업무지원팀에 낙하산 계약직으로 들어온 미스터리한 직원 미스김은 다숨이 연기한다. 타고난 총명함과 기억력, 눈치 백단에 터프한 반사 신경, 반전의 미모 등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닌 인물이다. 다숨은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부작 드라마(SBS TV ‘언니는 살아있다’)를 찍다가, 결말을 아는



권혁수, 김신일 PD, 다숨(왼쪽부터)

짧은 단막극을 찍으니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안정적이고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그게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그와 호흡을 맞춘 권혁수는 “6년

만에 주연을 맡아 가슴이 벅차오른다. 꿈을 꾸면 누구나 꿈을 꾸면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12월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